

문 25: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

답 25: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 것은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하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시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히브리서 7:24-25, 2:17, 9:14,28; 로마서 3:26, 10:4; 히브리서 2:17

질문 1: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몇번의 제사를 드렸는가?

질문 2: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행하시는가?

질문 3: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무엇을 제물로 드렸는가?

질문 4: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성하시기 위해 왜 “자기를 제물로” 드렸는가?

질문 5: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속제물이 되셨는데 그 전에 있었던 다른 동물제사가 이룰수 없었던 것은 무엇인가?

질문 6: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으로 하나님의 무엇을 만족하게 하셨나?

질문 7: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셨는가?

질문 8: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신 결과는 무엇인가?

질문 9: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지금까지 계속 행하시는 사역은 무엇인가?

질문 10: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완벽하게 행하심으로 예수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특권이 주어지는 것인가?

질문 1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간구하는 것인가?

설명: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오신 선지자이며 또 미비했던 모든 다른 선지자들의 사역을 완성하신 완벽한 선지자로 오심을 배웠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오신 제사장이며 모든 다른 제사장들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는 레위적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에 속한 대제사장 임을 배웠다.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레위적 제사장은 자신의 죄의 허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이다. 그러나 멜기세덱적 제사장인 그리스도는 죄와 무관한 분이다. 이렇게 레위적 제사장과 멜기세덱적 제사장이 구별되는데 답 25 은 이 차이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다.

레위적 제사장은 반복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 그들의 제사는 완벽한 제사가 아니었다. 제사장들은 오직 완벽한 제사장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이었다. 그리고 실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그의 모형이 더 이상 필요없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로 하나님을 만족시켰다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 귀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무한한 공의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한한 제물 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벽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그가 드린 속제물의 무한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행하신 사역은 무한한 사역이었다. 그리스도 외에 그 아무도 무한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제사장은 없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제물로 드렸다.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온전하며 완벽한 제사장과 온전하며 완벽한 제물이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온전하며 완벽한 제사장이 되시지만 만약 그가 동물을 제물로 드렸다면 그 제사는 온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한 제사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렸다.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는 온전하며 완벽한 제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옳으심과 거룩하심을 말하고 있는데 그에게는 어떤 순결하지 않거나 힘이 있거나 악이 없다. 그의 성품은 어떤 순결하지 않음도 혐오 악도 용납할 수 없다. 그의 공의를 깨뜨린 사람은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그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키도록 하셨다.

공의를 깨뜨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죽음이란 것을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온전하며 완벽하게 행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됨으로 적대시 되었던 관계가 화목하는 관계로 변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 죄를 용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히브리서 4:16)

화목하는 직분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또한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고린도후서 5:17-21) 화목하는 직분이란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목케 하는 직분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런 직분이다. 이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감당케하기 위해서이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의 간구는 온전하고 완벽한 간구이다. 그의 간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는 것이 없다. 제사장의 직분은 하나님께 죄인들을 위해 간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나에게 잘못된 자들을 위해 간구함이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죄인”들을 위해 간구함이 있어야 한다. 예수님의 간구는 무엇인가?

누가복음 23:34

요한복음 17:6-12

제사장이라면 그의 기도가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 정말 놀랍지 않는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혼돈하는 것이 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여기서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한 칼빈의 오대교리중 한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칼빈의 오대교리는 다음과 같다.

- 전적부패 (Total Depravity)
- 무조건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 제한속죄 (Limited Atonement)
-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 성도의 궁극적 구원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 가운데서 “제한속죄”에 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제한속죄와 그리스도의 제사장 되심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성경의 “제한속죄”의 가르침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별 인기가 없는 개념이다. 그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두가지를 들어본다.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할 이라는 것이다. 둘째, 만인 구원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된 죽임이 아니냐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이유들은 성경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칼빈의 오대교리의 순서만 보아도 그 것을 알수 있다.

제한속죄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에 근거한다.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오셨을때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는 그의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1:21
 요한복음 6:38-39; 10:15; 17:2, 6, 9-10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사역의 능력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사역의 목적에 제한을 두셨다. 오직 선택 받은자 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인간도 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하셨다. 메시아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직분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졌다. (베드로전서 2:9)